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전국·일본·중국서 추모행사 열린다

일본 도쿄 지요다 호텔에서 40여 명 참석 문화과 삶 기려
광주일보·시산맥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 생가 방문
창작 가무극·책 출판...광양에선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서시’의 시인 운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중국 지린(吉林)성 용정에서 태어나 명동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연희전문(연세대)을 졸업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애를 마쳤다.

올해는 운동주 시인(1917~1945)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탄생 100돌이 남다른 것은 나라 사랑을 향한 순결한 시심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100년이라는 한 세기는 물리적 시간을 넘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주의 생애와 문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그의 탄생일인 12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일보와 함께 운동주서시문학상을 창설한 계간 ‘시산맥’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하는 운동주 테마여행을 추진 중이다. 제1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 이경림 시인,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수상자 김미희 시인과 함께 운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일송정, 두만강 일대를 둘러본다. 또한 운동주 시인과 청년 열사 송몽규 묘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사망 72주년과 탄생 100돌을 기념하는 추모행사가 일본에서 열렸다. 서울시인협회 주최로 일본 도쿄 지요다 구 한국 YMCA 호텔 9층 강당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한국의 시인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해 시인의 문화와 삶을 기렸다.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도 무대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연희전문대 재학 시절부터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주인공 운동주 역은 배우 은주완과 박영수가 맡아 내달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운동주 시인이 그리운 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윤자호 시인은 “올해 한국 문단에선 운동주를 기리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관란한 운동주의 시를 매개로 한일 문단에도 교류의 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일본 제국주의는 운동주를 치안유지법으로 구속하고 옥사하게 했다”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열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과 사망 72년을 맞아 그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16일 저녁 도쿄 지요다구 한국 YMCA 호텔 9층 강당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린은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논집’ 등도 발간을 앞두고 있어 시인 운동주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 망덕 포구 정병욱 가족은 운동주 문학의 자취가 응결된 곳이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필사본이 보관돼 있던 문학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두 문인은 일본으로 함께 유학을 떠나 문학을 공부했던 절친한 문우다. 광양시는 올해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즈음에 운동주 심포지엄, 추모음악회,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운동주 문학연구보존회(이사장 윤태현)는 올해 중국 간도 생가보존회와 일본 요시다 교수와 함께 국제학술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운동주 문학 외 광양인가’를 주제로 3월 중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포럼은 학술적 기초를 토대로 운동주 시 정신을 선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무국장을 맡은 천창우 시인은 “문학인 외에 운동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국제학술포럼에서는 운동주 문학을 매개로 운동주 시인의 정신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 출신 인간문화재 박승희 명창 별세 호방한 동편제 ‘흥보가’ 명인

지난 2015년 ‘현역 최고령 소리꾼’인 여덟의 박승희 명창이 국립극원 무대에 올랐다. 스승인 박록주 명창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박 명창은 이 자리에서 스승이 생을 마감하기 전날 남긴 글에 소리를 붙인 단가 ‘인생백년’을 불러 깊은 감동을 전했다.

박록주 선생에게 ‘흥보가’를 사사할 때는 “돈은 없고 선생님의 소리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가 있느냐”는 그녀의 말에 스승이 “목이 졸음되면 되지”하면서 승낙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박 명창은 2002년 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됐으며 2003년 제13회 동리대상을 수상했고, 2006년 문화훈장 은관, 2010년 제17회 방일영 국악상을 받았다.

1927년 2월 3일 화순읍 화순을 만리에서 6남매중 막내딸로 태어난 박 명창은 보통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광주에서 첫 선생 박영구를 만나 ‘소리’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동일창극단을 시작으로 여성국극동호회, 새한국극단, 햇님극단 등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무대 경험을 쌓은 박 명창은 이후 당대 최고 명창들의 가르침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섭렵했다.

박 명창은 제자들에게 흥보가 등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판소리 다섯 바탕을 제외하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맥이 끊긴 ‘소리’를 전승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스승 박록주에게 이어받은 판소리 ‘숙영남자’가 대표적으로 당초 후반부만 전승되던 판소리 박 명창이 음악적 흐름에 맞춰 전부를 완수했다. 1995년 완창했고, 이후 제자들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박 명창은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9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3일이다.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평화연극제, 사라예보 겨울 평화축제와 작품교류

광주평화연극제가 올해로 33회를 맞은 사라예보 겨울 평화축제와 작품 교류를 시작했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에서 열린 제33회 사라예보 겨울 평화축제 현장을 방문, 공연 예술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평화축제 이브라바 스파이치 예술감독과 정순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두 기관이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연극 교류 공연을 상호 개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사라예보 55 멤버 시립극단과 그리스 아테네 콘스탄티누스 비비스 극단과도 상호협조, 연극 공연을 교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열릴 광주평화연극제에는 주제에 맞는 해외 초청팀을 초청, 관객들에게 유럽의 연극 공연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 봄학기 60개 강좌 운영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YMCA와 공동으로 문화센터 봄학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좌는 유아·어린이강좌, 청소년 토요일 강좌, 성인예술 취미강좌, 직장인 화요 야간강좌, 희망미술프로젝트 등 다양한 60개 강좌로 구성됐다. 올해 늘어거울 프로그램은 희망미술프로젝트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 접수하며 1학기 4회, 2학기 4회 진행된다. 자연물·친환경 재료 등을 통한 체험활동과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과 친해지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신규강좌도 개설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년예술지원센터 예술가들과 함께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빛깔과 향기’프로그램이 처음 열린다. 어린이들이 먹고 한국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디어아트를 이해할 수 있는 ‘현대 미술 빛과 조형’강좌도 개설됐다. 그밖에 성인 예술 취미 강좌 ‘빛깔과 향기’는 수채화·도예·누드드로잉·인물화 등을, ‘청소년 토요일강좌’는 도예·샌드아트·메이선·캘리그래피·에니메이션·수채화·유화 등을 교육한다. 강좌별 재료·교재비 별도 부담(일부강좌 제외). 문의 062-613-718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광주시내 (062)	전남 (061) · 전북 (063)
북구	동부권
동광 264-2012	고흥군 842-2121
문흥 266-1960	곡성군 362-8111
북광주 525-3761	구례군 782-4696
신안 222-8171	광양시 792-8111
양산 571-7658	보성군 852-9646
양치 266-7601	순천시 746-8111
용봉 522-7752	여수시 692-0997
우산 512-8116	나주시 335-5501
중흥 654-2985	강진군 434-6830
중남광 222-9440	담양군 383-8116
동구	영암군 471-1717
동동명 222-9054	장성군 394-0400
동동부 225-6001	장흥군 863-8822
중동양 222-1896	화순군 374-4423
중동장 222-8171	
남구	서부권
남부운 651-0175	무안군 452-8535
남백봉 675-5530	신안군 278-8111
송하 675-6605	영광군 351-1004
진월 671-7276	완도군 554-6677
서구	진도군 543-0100
광천 382-5788	함평군 324-8111
상무 372-2352	해남군 537-6767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전북권
운치평 376-6511	군산시 467-2500
동임 603-0311	정읍시 531-5544
화정 369-0583	순창군 652-1920
월곡 941-9174	남원시 626-1601
광산구	고창군 010-2815-2267
침단 973-2900	부안군 582-8118
하남 959-1500	
하산 944-0444	

독자와 함께 읽어야 할 65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문인의 산실 생오지

‘문예창작대학’ 2017년 수강생모집

2016년 신춘문예 등 6명 등단 |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발돋움’

재단법인 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 부설 문예창작대학에서는 2017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로 운영되는 생오지 문예창작대학은 매학기 12강좌를 개설해 실기 위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문단의 중견 작가들 강사로 초빙,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합니다.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널리 알려진 생오지문예창작촌은 2016년 신춘문예와 문예지 신인 문학상을 통해 6명의 신인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정미경이 세계일보 세계문학상 장편소설공모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에서는 2007년 <생오지 문학의집> 개설 이후 2016년까지 모두 35명이 등단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요강

1. 과목 인원 강의시간
 - 시창작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 소설창작반 30명 토요일 오후 2~4시
 - 소설등단반 15명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 기초 글쓰기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2. 강의기간 : 1학기 3월 11일 ~ 6월 10일 / 2학기 9월 9일 ~ 12월 9일
3. 등록마감 : 3월 5일
4. 등록 및 수강신청
 - 문의전화 : 010-2441-4830
 - E-MAIL : jyc910106@naver.com
 - 소설등단반은 단편 1편을 이메일로 접수, 심사 후 수강신청 가능
5. 개강 및 특강 : 3월 11일 (토) 오후 2시
6. 강의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현천로 338번길 7 광주문화재단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 혹은 카페 ‘생오지문예창작촌’을 클릭하세요

(재) 생오지문예창작촌 부설 문예창작대학